

최근 경제상황 인식과 '삶의 질' 평가

■ 현 경제상황 인식

- _ 세계경제, 우리경제, 내 개인, 모두 '나쁘다' 높아
- _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4060세대 특히 높아
- _ 경기.인천지역과 자영업자,주부 '부정 인식도' 높아
- _ 중간 소득층 '부정 인식도' 높고, 이념별 차이는 없어

■ '나쁜 경제상황' 유지 시기 전망

- _ '내후년(2025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 높아
- _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많아
- _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내후년(2025년)' 가장 많아
- _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모르겠다' 높아

■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 _ '물가상승' 영향, '부정적' 83%로 매우 높아
- _ 4060세대 부정적 영향 특히 높아
- _ 호남지역과 화이트칼라,주부 부정영향 특히 높아
- _ 소득 높을수록 부정영향 높고, 이념별 큰 차이 없어

■ '삶의 질' 평가

- _ 삶의 질, 대한민국 '평균이다' 44%, '평균보다 낮다' 43%
- _ 다음 세대 삶의 질, '나보다 나빠질 것' 높아
- _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있다' 71%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3월 3일(금) ~ 3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4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3\%$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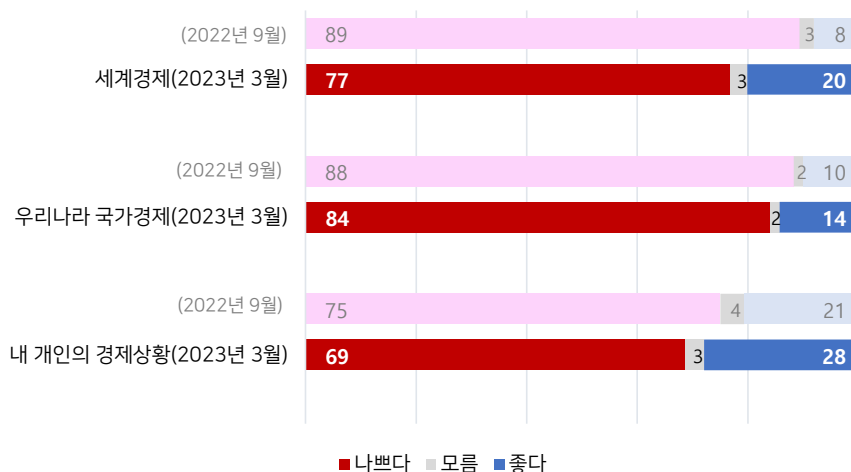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최근 경제상황 인식

□ 세계경제, 우리경제, 내 개인, 모두 '나쁘다' 높아

- 우리 국민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세계경제'도 나쁘고(77%), '우리나라 국가경제'도 나쁘며(84%), '내 개인의 경제상황'도 나쁘다(69%)는 생각이 매우 강함
 - "선생님은 요즘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그리고 선생님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6개월 전 조사(2022년 9월)와 비교하면 '나쁘다'는 인식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경제' 나쁘다는 인식은 13%p 하락했고, '우리 국가경제' 나쁘다 4%p, '내 개인 경제상황' 나쁘다 6%p 하락함

현 경제상황 인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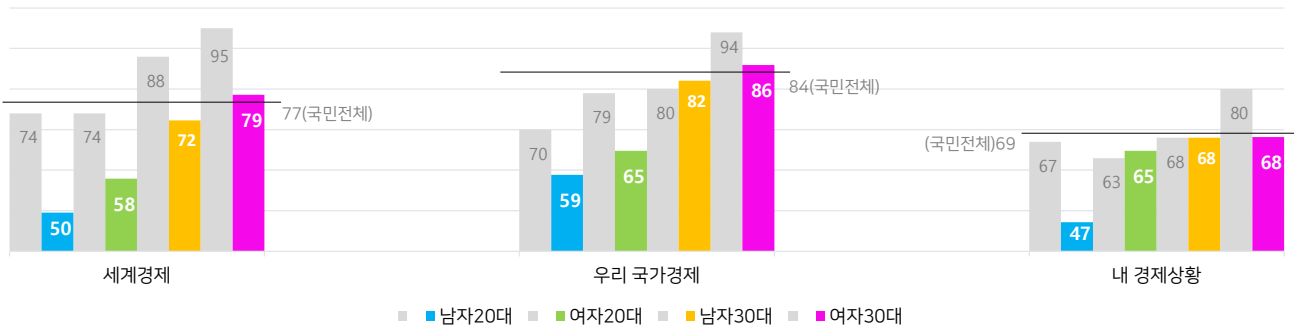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충격'이 여전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상황 인식 역시 부정적 평가가 유지됨
 - : 작년 9월에 비해 '나쁘다'는 인식이 하락했으나, '세계경제' 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내 개인의 경제상황' 하락폭이 적어 큰 틀에서 작년과 유사한 인식을 유지함
- ☑ 정부도 2월 발간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 경제상황도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함
 - :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임
 - : 한국은행 1.6% / 아시아개발은행 1.5% / LG 경영연구원 1.4% / 주요 해외투자은행 9곳 평균 1.1%
 - :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3년 연속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 국민의 경제적 삶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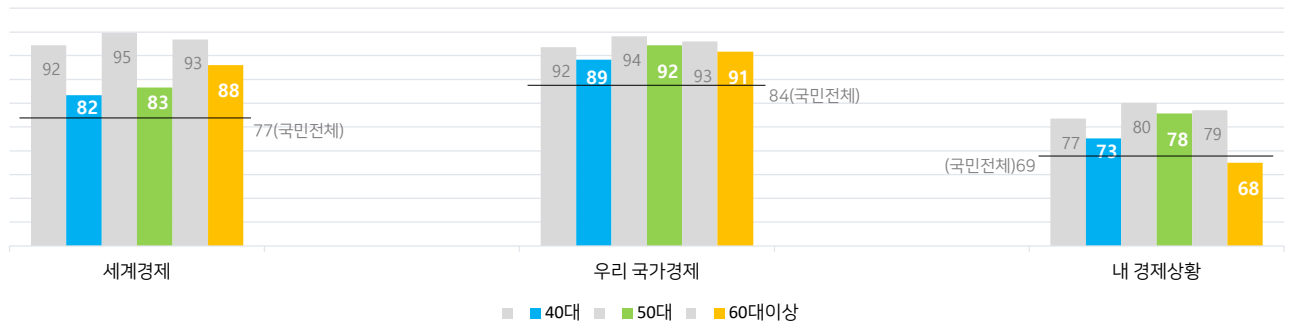
□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4060세대 특히 높아

- 최근 경제상황 인식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4060세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4060세대는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나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20대의 '부정 인식도'가 가장 낮고, 같은 세대 안에서는 남자의 '부정 인식도'가 낮음
 - 이에 따라 2030세대만 놓고 볼 때 20대 남자의 '부정 인식도'가 가장 낮고, 30대 여자가 가장 높음
- 작년 9월과 비교하면 모든 성/연령층의 '부정 인식도'가 하락함
 - 특히 20대가 많이 하락했으며, 30대와 4060세대의 하락 폭은 적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연령별 막대 앞의 회색 막대)는 작년 9월 조사결과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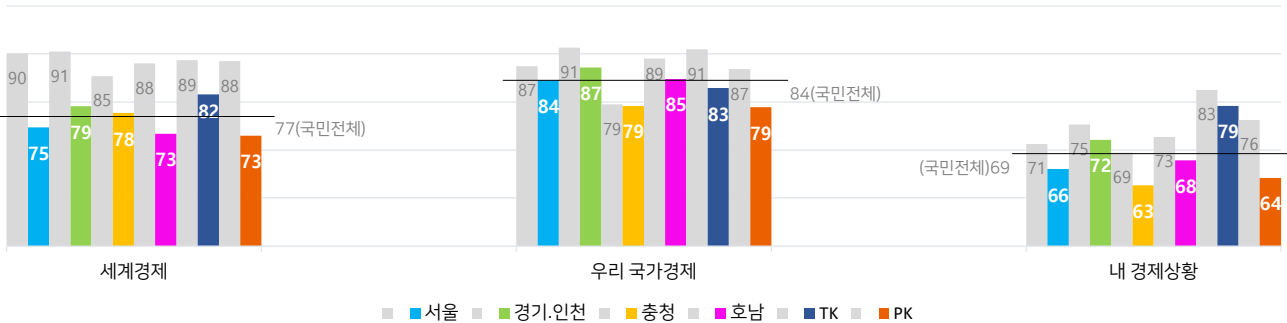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모든 성/연령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60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높음
 - : 이에 비해 20대는 상대적으로 낮고, 30대는 그 중간에 위치함
- ☑ 6개월 전 경제인식과 비교해도 20대의 부정인식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비해, 4060세대는 그렇지 않음
 - : 특히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를 보면 20대는 많이 하락했지만, 30대와 4060세대는 소폭 하락에 그침
 - : 객관적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나아진 점이 없는데도 20대만 특별하게 인식이 개선된 점이 눈에 띈
- ☑ 20대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조사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현상임
 - : 케이스탯 리포트 67호 『국민 스스로 만든 2023년 토정비결』에서도 20대는 모든 항목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함
 - : '저성장 시대'만을 경험하고 있는 20대의 '독특함' 때문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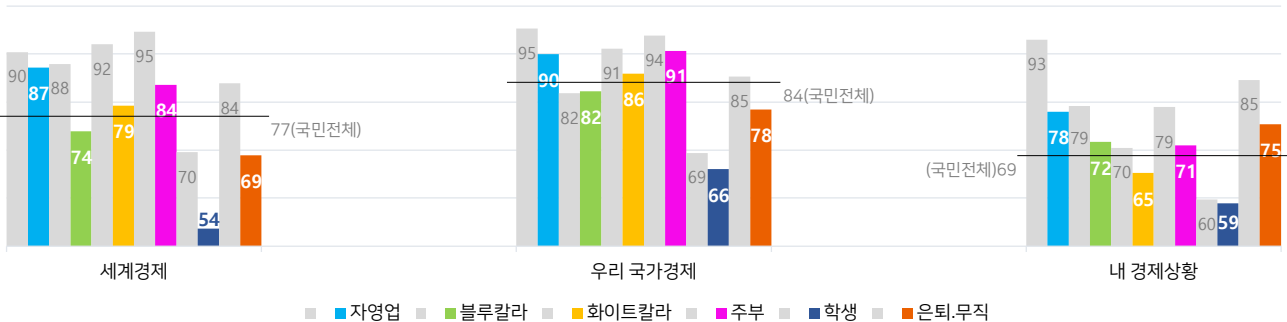
□ 경기.인천지역과 자영업자,주부 '부정 인식도' 높아

- 최근 경제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기.인천의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인천지역은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준의 '부정 인식도'를 기록함
 -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이고, 회색 막대(계층별 막대 앞의 회색 막대)는 작년 9월 조사결과임
- TK지역의 경우 '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79%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음
 - 상대적으로 PK지역의 '부정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주부의 '부정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음
 - 자영업자와 주부 계층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준의 '부정 인식도'를 나타냄
 - 상대적으로 학생층의 '부정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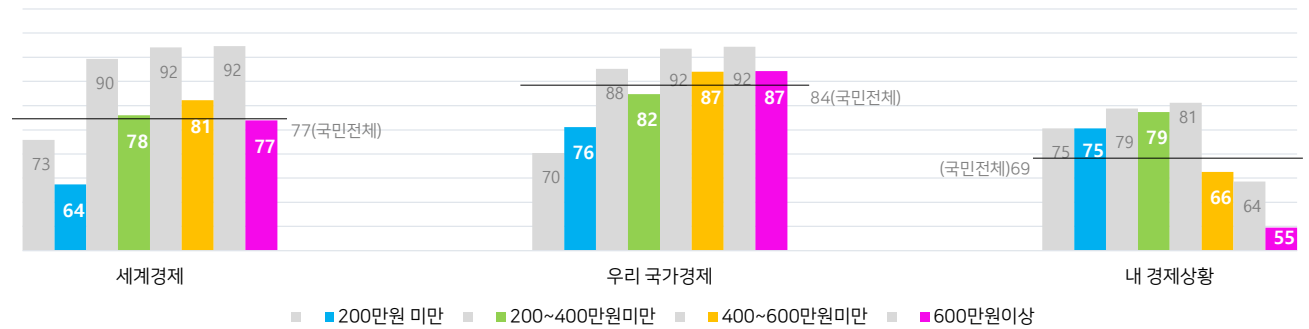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6개월 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지역과 모든 직업군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음
 - : 특히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지역별로는 79% 이상이고, 직업별로는 66% 이상임(학생을 제외하면 78% 이상)
 - : 작년부터의 경제위기 상황이 전 지역과 전 직업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은 정부 집중 정책분야로 '경제성장.일자리' 29%, '물가안정' 28%로 응답했고, 이 둘을 합하면 57%로 경제문제가 절반을 넘음(자료:KBS-한국리서치, 1월20일 조사)
 - : 정치안정, 사회안전망 확대, 남북.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요구는 낮았음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으로 판단됨
 - : 반대로 '경제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나쁜 경제 상황이 유지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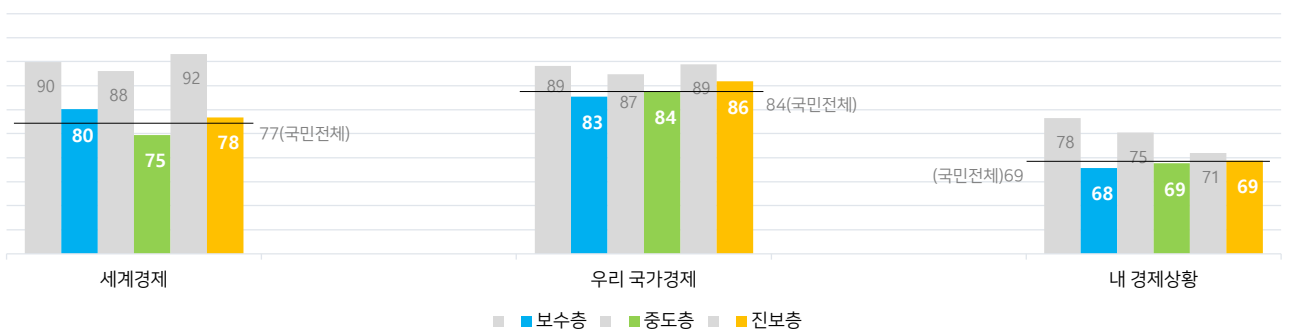
□ 중간 소득층 '부정 인식도' 높고, 이념별 차이는 없어

-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를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가구의 '부정 인식도'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중간 소득 가구는 '세계경제', '우리 국가경제'를 비롯해 '내 경제상황'에 이르기까지 '부정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세계경제'와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매우 낮음(55%)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음
- 한편,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소득별, 이념별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그림에서 회색 막대(계층별 막대 앞의 회색 막대)는 작년 9월 조사결과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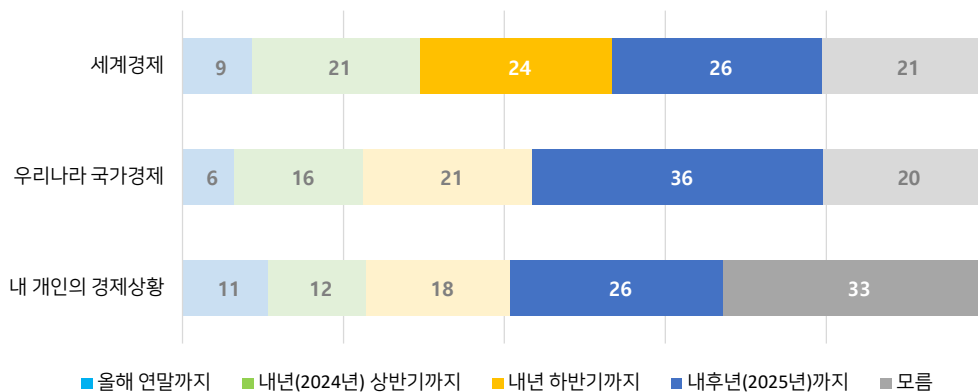
- ☑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간 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상임
 - : 저소득층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고소득층은 경제적 토대가 탄탄한 데 비해, 중간 소득층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중간 소득층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그대로 '부정 인식도'에 투영되는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이념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나쁜 경제상황' 유지 시기 전망

□ '내후년(2025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 높아

-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나쁜 경제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함
- '세계경제', '우리 국가경제', '내 개인의 경제상황' 모두 '내후년까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앞서 '나쁘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선생님은 지금의 나쁜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특히 '내 개인의 경제상황'은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모르겠다'는 의견이 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내후년(2025년)까지' 26%로 응답함

나쁜 경제상황 유지 시기 전망 : '나쁘다' 응답자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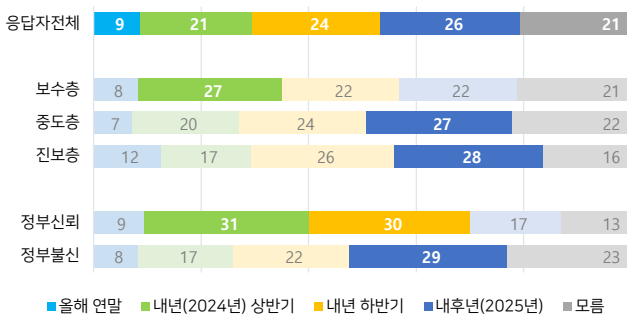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인식하고, '나쁜 경제상황'이 내후년(2025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함
 - :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의견은 소수에 그침
- ☑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6개월 전인 작년 9월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 2022년 9월 조사에서도 '나쁜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
 - : 세계경제 - 내년(2023년) 하반기까지 28% / 우리 국가경제 - 내후년(2024년)까지 34% / 내 개인 경제상황 - 내후년(2024년)까지 25%, 모르겠다 31%
 - : 즉, 특정 연도가 아닌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의미로 '내후년'이라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음
 - : 2022년 9월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58호 『경제상황 인식과 '자신의 삶' 평가』 참고
- ☑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팽팽해 있고,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 특히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을 정도로 불안심리가 강함
 - : 국민 삶의 기본 토대인 경제적 삶이 이렇듯 불안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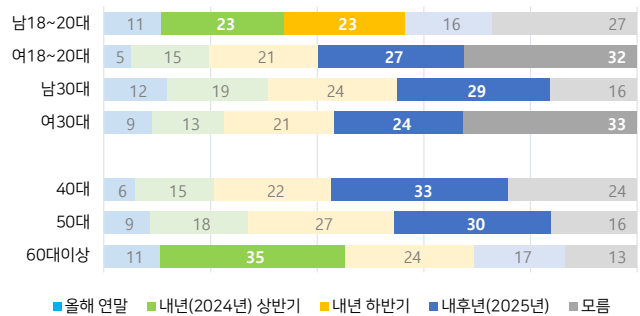
□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많아

- 국민들은 최근 세계경제의 나쁜 상황이 '내년(2024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2025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함
 - '내후년(2025년)까지'가 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내년(2024년) 하반기까지'(24%), '내년 상반기까지'(21%) 순으로 응답함
 - 앞서, 요즘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국민들에게만 질문한 결과임
- 계층별로 우세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내후년(2025년)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함
 - 특히 우세한 계층은 △4050세대 △TK 등임
-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내년(2024년) 상반기'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정부신뢰층 △남자 20대 △60대이상 △경기.인천 △은퇴.무직자 등임
- '내후년'보다도 더 비관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학생 등임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전체,이념별,정부신뢰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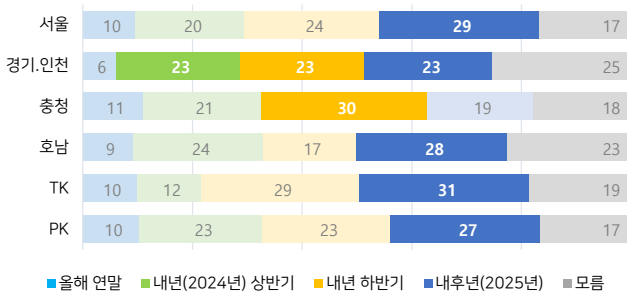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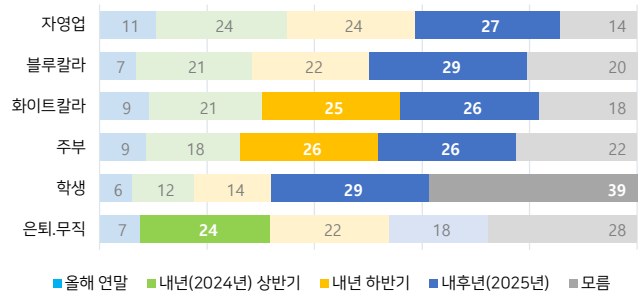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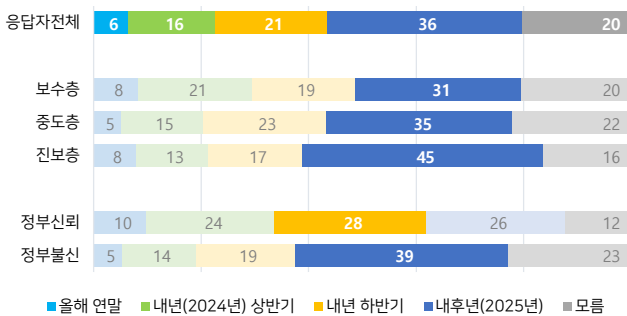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세계경제의 '나쁜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9%에 불과함
- ☑ 한편, 이념과 정부 신뢰 여부에 따라 '나쁜 상황' 유지 전망이 달라지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임
 - : 보수층과 정부 신뢰층은 상대적으로 빠른 '내년(2024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우세하고,
 - : 중도·진보층과 정부 불신층은 '내후년(2025년)'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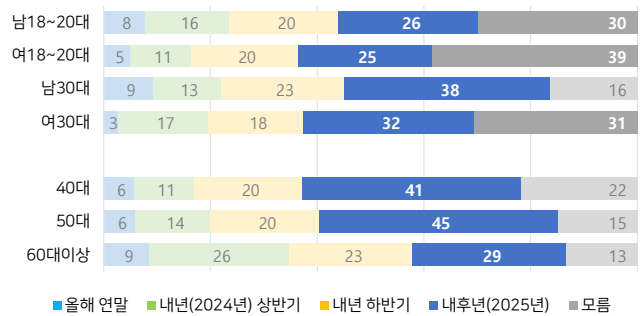
□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내후년(2025년)' 가장 많아

- '우리 국가경제'의 '나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내후년(2025년)까지'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36%), 다음은 '내년(2024년) 하반기까지'(21%), '내년 상반기까지'(16%)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요즘 우리나라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국민들에게만 질문한 결과임
-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내후년(2025년)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정부불신층 △4050세대 △서울, TK △자영업자 등임
- '내년(2024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정부신뢰층 △충청 등임
- 한편, '모르겠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기록한 계층은 △남녀 20대, 여자 30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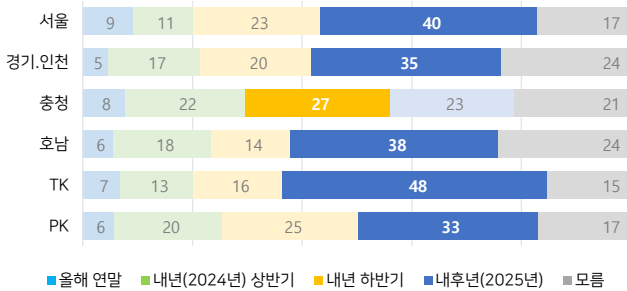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전체,이념별,정부신뢰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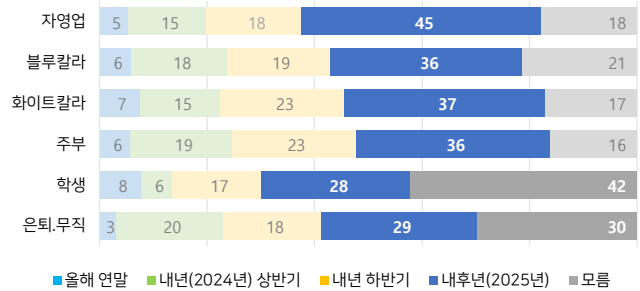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성/연령별 (단위:%)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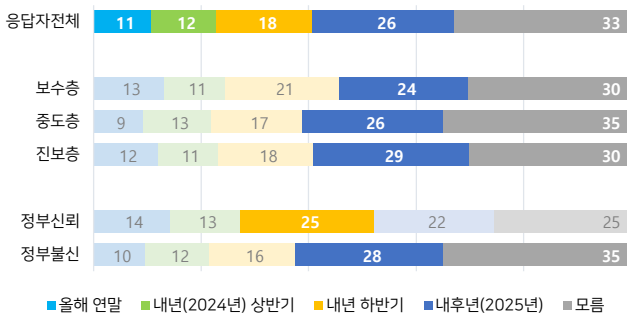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세계경제 전망보다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더 비관적임
 - :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외에도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등의 의견도 많았으나, 우리 국가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함
- ☑ 세부적으로는 이념과 정부 신뢰 여부에 따라 '나쁜 상황' 유지 전망이 소폭 달라짐
 - :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내후년(2025년)' 응답 비중이 적고, 진보층은 매우 많음
 - : 정부 신뢰층은 '내년(2024년) 하반기' 응답이 우세하고, 정부 불신층은 '내후년(2025년)'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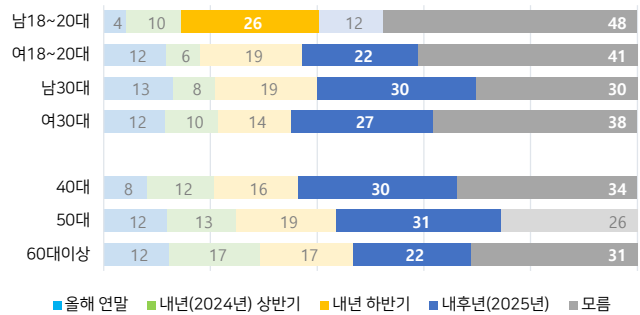
□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모르겠다' 높아

- '내 개인의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나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내후년(2025년)까지'(26%), '내년(2024년) 하반기까지'(18%), '내년 상반기까지'(12%) 등임
 - 앞서, 요즘 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국민들에게만 질문한 결과임
-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중도층 △정부불신층 △남녀 20대 남녀, 여자30대 △경기.인천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상대적으로 '내후년(2025년)까지'라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4050세대 △서울 △자영업자 등임
 - '내년(2024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정부신뢰층 △남자 20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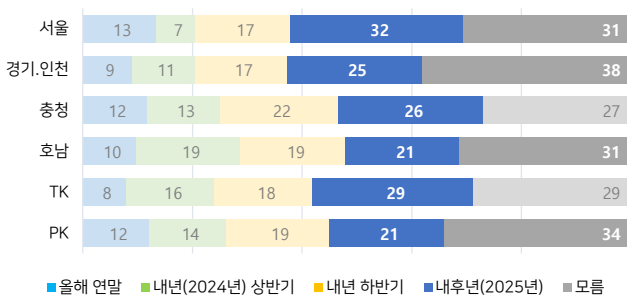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전체,이념별,정부신뢰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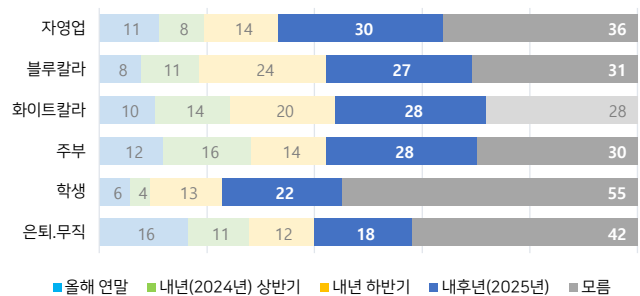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성/연령별 (단위:%)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지역별
(자료:케이스렛,2023.03.05조사,단위:%)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직업별
(자료:케이스렛,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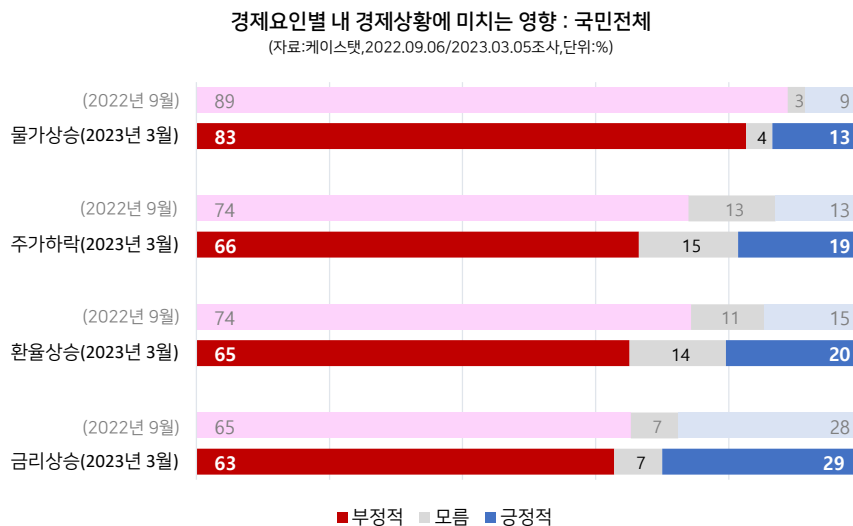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신의 나쁜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모르겠다'는 비관적인 응답이 많음
 - : 세계경제와 국가경제 전망과 달리,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는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 앞서 20대의 '독특함'을 언급했는데, 20대의 경제상황 인식은 매우 극단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내 경제상황' 인식 - 남자 20대, '좋다' 48% vs '나쁘다' 47% / 여자 20대, '좋다' 29% vs '나쁘다' 65%
 - : '나쁘다' 응답자 중 '모르겠다' 비중 - 남자 20대, 48% / 여자 20대, 41%
 - : 즉, 자신의 경제상황이 '좋다'는 응답자와 '나쁘다 - 모르겠다' 응답자가 극단화되어 있고, 특히 20대 남자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함
 - : 이른바 '계층 고착화' 양상이 엿보이는 지점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 '물가상승' 영향, '부정적' 83%로 매우 높아

- 최근의 경제요인들 모두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의 부정 영향이 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가하락' 66%, '환율상승' 65%, '금리상승' 63% 순으로 응답함
 - "선생님 개인의 경제 상황만 생각할 때, 다음 각각의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6개월 전인 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부정 영향도가 감소함
 - 6개월 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물가상승 -6%p, 주가하락 -8%p, 환율상승 -9%p, 금리상승 -2%p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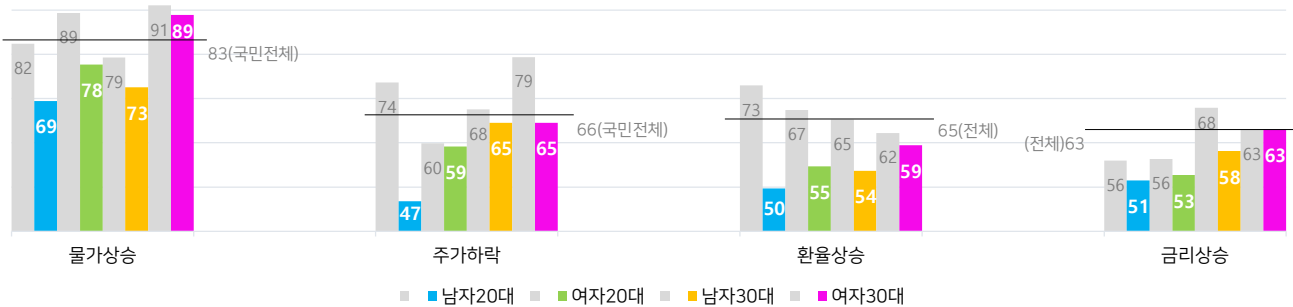
Kstat Point

- ☑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요인들이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개인의 입장에서 이들 경제요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타격이 큼
- ☑ 특히 '물가상승'의 경우 6개월 전에도 부정 영향도가 89%였고 지금도 83%로 매우 높아, 개인의 경제상황에 가장 부정적인 문제로 나타남
 - : '물가상승'은 곧바로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개인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
 - : 3월 6일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개인의 경제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 ☑ 또한 '금리상승'은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부정 영향력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 힘들어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역설적으로 '금리상승'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29%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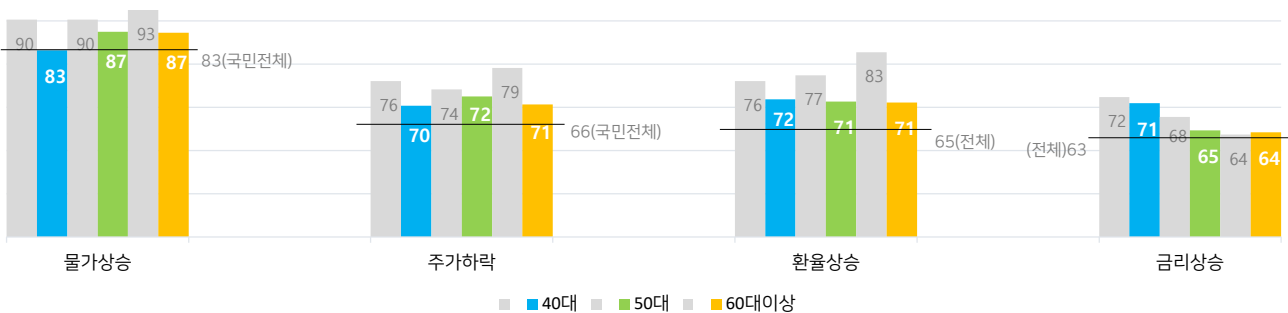
□ 4060세대 부정적 영향 특히 높아

- 경제요인 전반에 대해 4060세대의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고,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음
 - 4060세대는 모든 요인이 국민 전체보다 높고, 2030세대는 낮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적 영향' 수치임
- '부정적'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경제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최소 69% 이상을 기록함
 - 남자 20대가 69%로 가장 낮고, 여자 30대가 89%로 가장 높음
-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응답 수치가 하락함
 - 특히 2030세대에서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요인이 대폭 하락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연령별 막대 앞의 회색 막대)는 작년 9월 조사결과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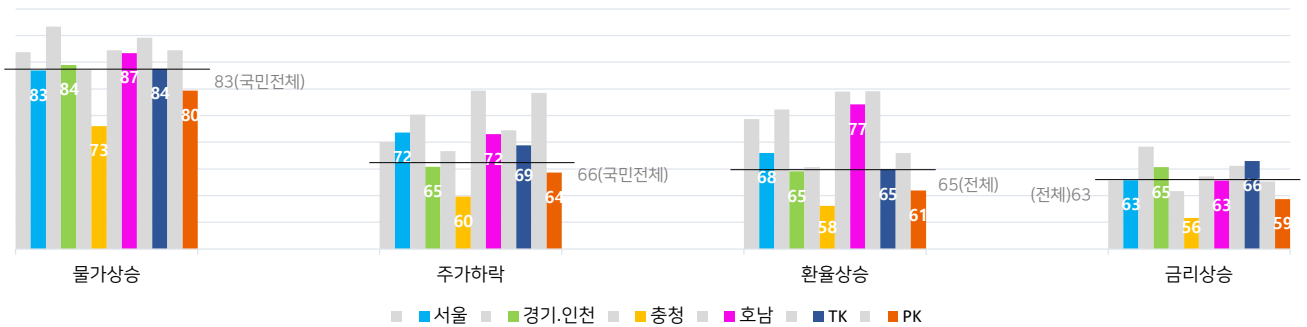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상승'은 성/연령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세부적으로는 4060세대와 30대 여자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20대 남녀와 30대 남자가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함
- ☑ 또한 4060세대는 '주가하락', '환율상승', '금리상승' 등이 국민 전체보다 부정 수치가 높고, 2030세대는 낮다는 차이가 있음
 - : 이는 세대 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차이와 경제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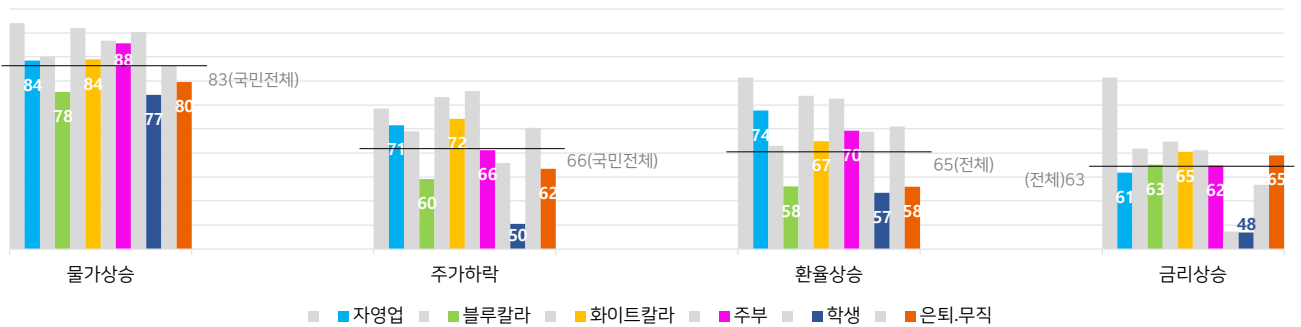
□ 호남지역과 화이트칼라,주부 부정영향 특히 높아

- 경제요인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지역의 경우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적 영향' 수치임
- 이에 비해 충청과 PK지역은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수치가 낮음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주부의 부정적 영향 수치가,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는 '금리상승' 외 다른 경제요인의 '부정적' 수치가 국민전체 보다 높음
- 이에 비해 블루칼라와 학생은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낮은 '부정적' 수치를 기록함
-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수치가 하락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계층별 막대 앞의 회색 막대)는 작년 9월 조사결과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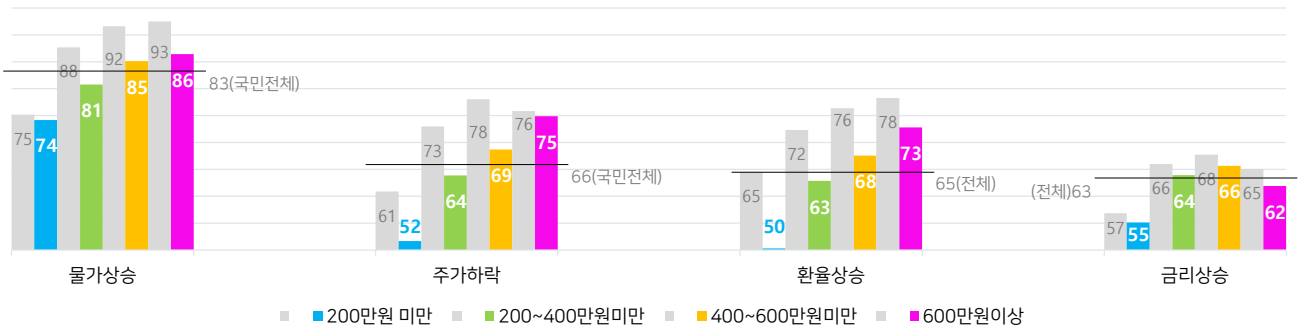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 주가, 환율, 금리 등 4가지 요인의 부정적 영향 수치가 6개월 전에 비해 하락함
 - : 이는 6개월 전에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았으나 이후 상황에 적응한 결과로 보임
 - : 또한 각각의 요인들이 6개월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물가를 보더라도 불안정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며, 국민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높은 수준임
 - : 정부 입장에서 다른 경제요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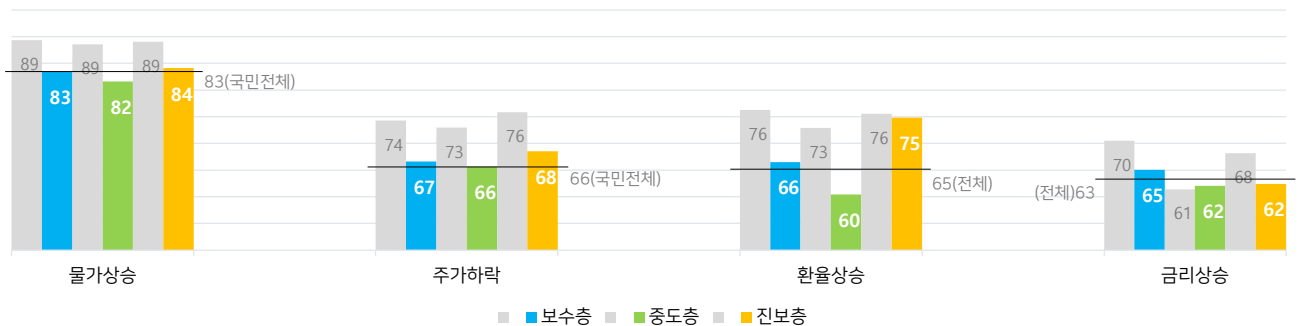
□ 소득 높을수록 부정영향 높고, 이념별 큰 차이 없어

- 경제요인들이 개인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 수치가 높음
 - '금리상승'만 예외적으로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부정적 수치가 소폭 낮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음
 - '환율 상승'만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요인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음
-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모든 경제요인에 걸쳐 '부정적 수치'가 하락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계층별 막대 앞의 회색 막대)는 작년 9월 조사결과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2023.03.05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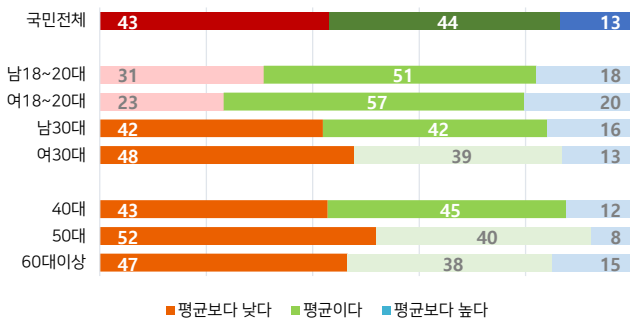
- ☑ 최근 경제상황은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비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물가상승' 외의 다른 요인들에서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음
 - : 이러한 차이는 자산 보유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며, 최근의 경제상황이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금리하락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이러한 정부 정책이 향후 고소득층의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 '삶의 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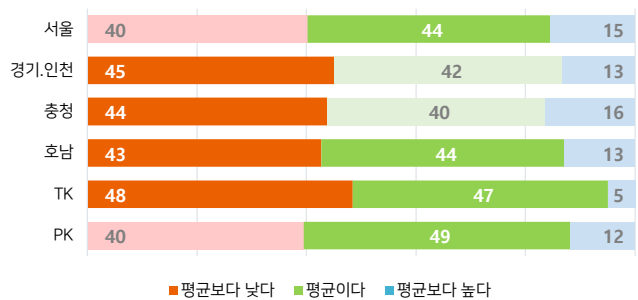
□ 자신의 삶의 질, 대한민국 '평균이다' 44%, '평균보다 낮다' 43%

-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삶의 질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이라고 생각함
- '평균이다' 44%, '평균보다 낮다' 43%가 비슷한 가운데 '평균보다 높다'는 13%에 그침
 -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비교할 때, 스스로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평균이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20대 △서울, PK △화이트칼라, 학생 △400만원 이상 소득층 △중도층 등임
-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5060세대 △경기.인천, 충청 △자영업, 블루칼라, 은퇴.무직 △4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 '평균이다'와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30대 △40대 △호남, TK △보수층,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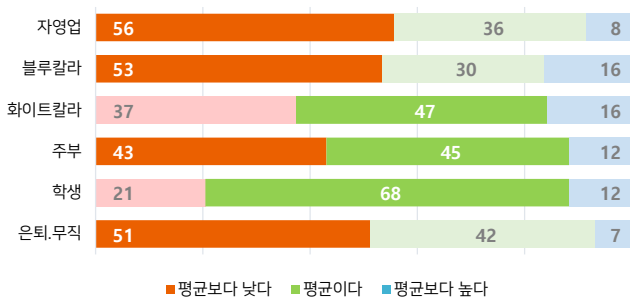
내 '삶의 질' 수준 : 국민전체,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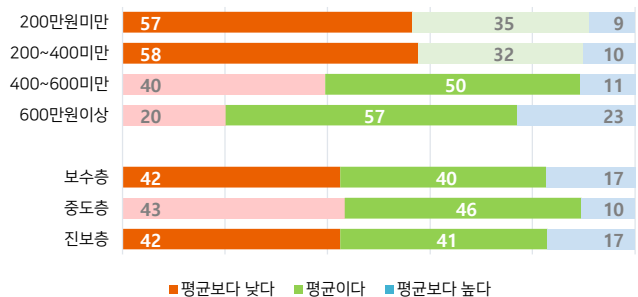
내 '삶의 질' 수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내 '삶의 질' 수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내 '삶의 질' 수준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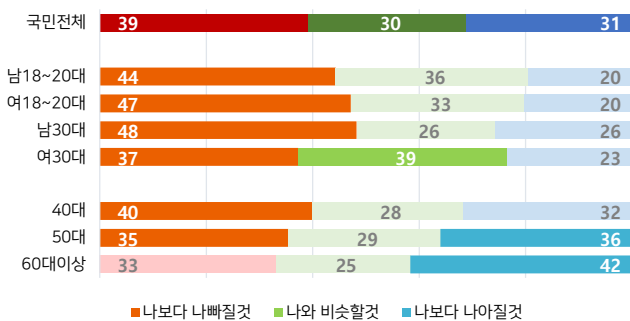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평균이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43%이고, '평균보다 높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 : 특히 20대를 제외한 3060세대 모두에서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 이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의미로 읽혀,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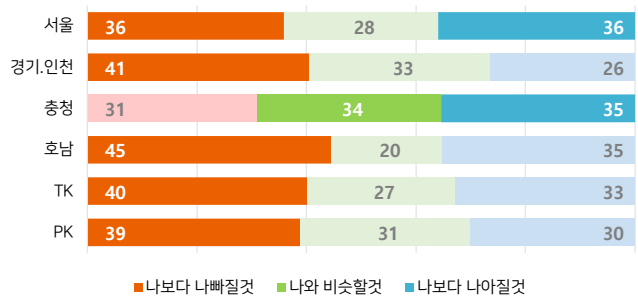
□ 다음 세대 삶의 질, '나보다 나빠질 것' 높아

-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다음 세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삶의 질'이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나보다 나아질 것' 31%, '나와 비슷할 것' 30% 순으로 조사됨
 - "선생님보다 어린 세대가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이 선생님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20대, 남자 30대 △40대 △경기.인천, 호남, TK, PK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 △200만원 이상 소득층 △진보층 등임
- '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60대이상 △보수층에 그침
-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난 계층은 다음과 같음
 - '나보다 나빠질 것'과 '나와 비슷할 것' : 여자 30대, 중도층 / '나와 비슷할 것'과 '나보다 나아질 것' : 충청 / '나보다 나빠질 것'과 '나보다 나아질 것' : 50대, 블루칼라 / 세 의견 비슷 : 200만원 미만 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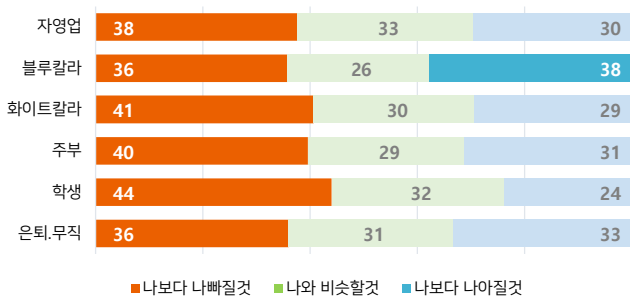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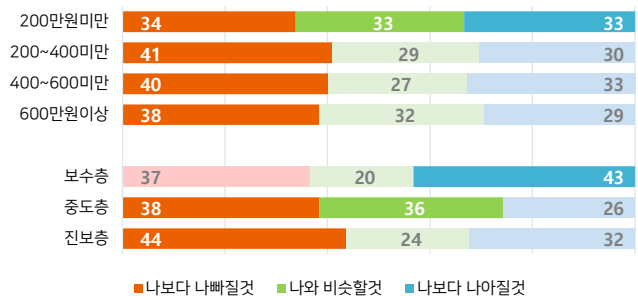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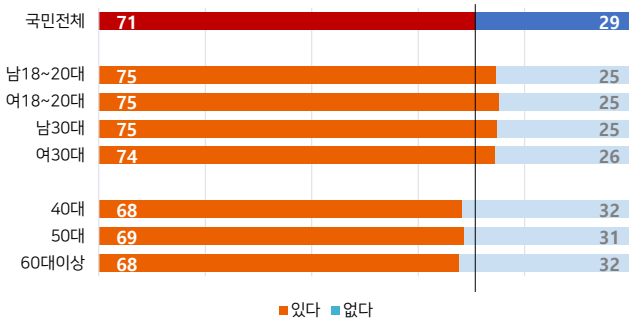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은 물론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 : 성/연령별로 볼 때 사실상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에서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 ☑ 이는 대한민국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으로 분석됨
 - : 또한 다음 세대의 삶에 부정적이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있다'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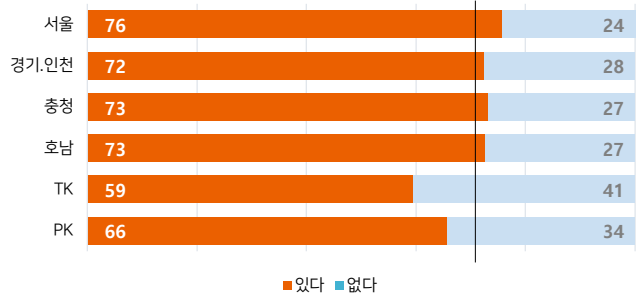
-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71%, '없다' 29%로 조사됨
 - "선생님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일을 더 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다라도 모든 계층에서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2030세대 △서울 △블루칼라, 학생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 6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등임
-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60세대 △TK, PK △주부, 은퇴.무직 △200만원 미만 소득층 △진보층 등임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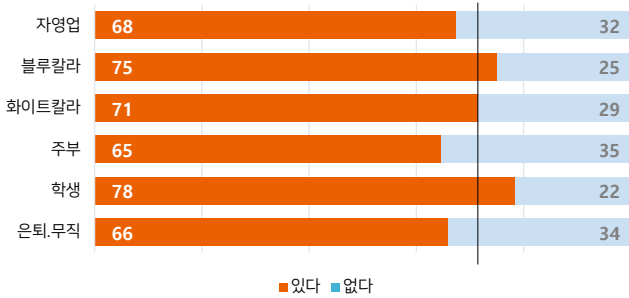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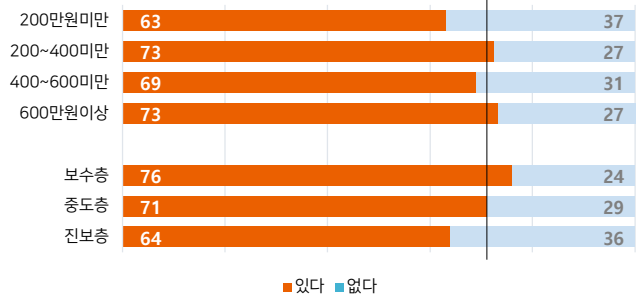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Kstat Point

- ☑ 우리 국민 다수는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일을 더 하겠다고 생각함
 - : 이는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고정적 수입 외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기존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임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69호 『국민의 경제적 삶 현황 및 분석』 참고
- ☑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했으나 경제상황 악화로 이러한 생각이 다소 바뀌는 것으로 판단됨
 - :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결과로 보임
- ☑ 이러한 변화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주 69시간 탄력 운영)'안 수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됨
 - : 다만, 지금보다 일을 더 하겠다는 주체는 '나'인데 비해, '주 69시간 탄력 운영'은 '회사가 주체'라는 차이가 있음
 - : 또한 '연장근로' 이후 더 일한 시간만큼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1호는 『국민 '소비 가치관' 변화상 분석』

이라는 주제로 3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3월 사회지표는 3월 1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